

지역 中企 ‘코리아 엑스포’ 43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광주경제일자리재단, 6개사 공동관 운영
K-Class 행사 성황...현지 소비자 호평
코로나19 이후 유럽 전시회 처음 참가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수출 성
과를 올리며 유럽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
렸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8일 “지난 1
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5 코리아 엑
스포 인 파리 (Korea Expo in Paris 2025)’에 지
역 기업들과 함께 광주시 공동관으로 참가해 430
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6개사가 함께 참
가해 수출상담 140만달러, 현장 계약체결 430만
달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유럽 전시 참가를 주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권에서 열린



최근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 부대행사로 진행된 K-Class 프로그램에서 참가객들이 나전칠기 손거울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제공〉

대규모 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것으로 지역 기업
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됐다.
광주 공동관은 IR카메라·가전·전통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 기업 제품들을 한자리에 선
보였다.

‘제로웨이’의 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제품과
‘센도리’의 공기순환기, ‘유니컴퍼니’의 적외선
(IR)카메라, ‘티아이피인터내셔널’의 두피케어
기 ‘스위치온’의 조명기구, ‘2월의 산’의 나전칠
기 자개보석함 등은 유럽 바이어 및 현지 관람객

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부대행사로 진행된 참가기업 제품 시연
프로그램인 ‘K-Class’에도 광주기업 두 곳이 참
여해 현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얻었다. ‘티아이피인터내셔널’은 두피

케어기 체험 및 작동 시연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조사했으며 ‘2월의 산’은 나전칠기 자개손거울
만들기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
다움을 전달했다.
양사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소비자 접점을 확보
하며 향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김현성 광주일자리재단 대표는 “지역 중소기
업들이 트랩프 2기 관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대
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로개
척을 위해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
뒀다”며 “향후에도 광주시와 협력해 지역 수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리아 엑스포는
‘새로운 영감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Inspira
tion: Imagine with Korea)’를 주제로 한류의 감성
과 대한민국 제품의 경쟁력을 한자리에 선보
였다. 문화와 수출이 결합된 새로운 전시 모델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에는 203개 기업이 300개 부
스를 운영했으며 총 관람객 3만2천여명을 기록
했다.
/정은솔 기자

농식품부-aT, UAE 한우시장 개척 본격화

현지서 할랄인증 런칭행사 개최
중동 바이어 등 120여명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중동시장에서 한국산 할랄 한우의 본격
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aT는 18일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힐튼호텔 내 프리미엄 한식
당 누리그릴엔바에서 ‘할랄인증 한우 런칭행
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동지역 육류 바이어와 5성
급 호텔 셰프, 현지 오피니언 리더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한국산 할랄 한우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한국 도축장이 할랄 인
증을 획득한 이후 처음 열린 현지 홍보 행사로
그동안 한-UAE 간 쇠고기 검역이 타결되고 현
지 교민과 바이어들의 한우에 대한 수요가 높았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UAE 할랄인증 도축
장이 없어 한우 수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중동 할랄한우 도축장 최초
인증이 완료되고 지난 3월 aT-농협경제지주 등
4사간 MOU가 체결되면서 할랄 한우의 중동 진
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주목받은 최

현식 셰프가 직접 참여해 한우의 부위별 특성과
조리법을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
다.
행사에서는 참석자 120여명에게 육회, 스테
이크 등 한우 코스요리가 제공됐으며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의 한우를 할랄인증을 받은 형성
KC가공공장에서 도축해 사용했다.
홍문표 aT사장은 “한국 할랄 한우 소개는 단
순한 육류 홍보를 넘어 K-푸드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
인 준비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본부세관, 6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마약 국내 반입 차단한
정영덕·조해인 주무관 수상

광주본부세관은 6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정영덕·조해인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18
일 밝혔다.
〈사진〉
정영덕 주무관은 마약 적발 사례 연구 및 정

보분석을 통해 특이 패턴 우범 여행객을 판넬
선별해 검사 지정했고 조해인 주무관은 우범도
가 높은 항공편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해당 수화물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들은 탁월한 협업을 바탕으로 매트암페타
민 3.6Kg (12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 밀반입
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일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



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
인’을 선정 포상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LH 광주전남본부 ‘재능모아봉사단 2기 발대식’ 개최

이달 학생 대상 공예 체험 시작
60회 재능봉사 시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이날 임대주택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LH
재능모아봉사단’ 2기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
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LH
작은도서관을 통해 먼저 배운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제로 도서관에서 자격증을 취

득한 입주민이 복지기관 등에 재능기부로 환원
하는 품앗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재능모아봉사단은 지난해 지역복지기관 발
달장애인 대상 48회 품앗이 봉사활동으로 지역
민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 2기 발대식을 개최하
게 됐다.
LH는 봉사단 인력구성, 사회복지기관 매칭
등을 통해 봉사단이 재능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이달 공립특수학교인 선
예학교와 함께하는 공예체험을 시작으로 60회
재능봉사를 진행한다.
/임재만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CMYK